

통신/미디어

KT-CJ ENM, 통합 OTT 출범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KT 시즌(Seezn)과 CJ ENM 티빙(Tving) 합병 공식화

KT와 CJ ENM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시즌(Seezn)과 티빙(Tving)의 합병안을 결의. Tving이 Seezn을 흡수 합병하고 Seezn 지분을 100% 보유한 KT스튜디오지니가 합병법인의 지분을 취득해 3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 Tving과 Seezn 합병비율은 1대 1.5737519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1일 예정.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OTT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

합병을 통한 국내 최대 OTT의 출범

CJ ENM은 지난 3월 21일 1,000억원을 출자해 KT스튜디오지니 지분 약 10%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등극. KT가 보유한 콘텐츠 IP와 CJ ENM의 제작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사업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6월 기준 Tving과 Seezn의 MAU(월간사용자수)는 각각 401만명, 157만명으로 단순 합산 기준 MAU 558만명의 국내 최대 통합 OTT 출범 예정

시사점

이번 합병은 미디어 사업에서 양사가 가진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는 Win-win 구조라는 판단. 최근 오리지널 콘텐츠 <구필수는 없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콘텐츠 유통 및 채널 역량을 입증한 KT스튜디오지니는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던 OTT 플랫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최근 Tving 가입자 정체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던 CJ ENM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Tving 가입자 성장이 재개될 전망. 특히, KT의 핸드셋 가입자 1,402만명(22년 5월 기준)에 대해 Seezn 대신 Tving이 기본 앱으로 깔릴 경우 Tving 가입자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CJ ENM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